

"나는 기생충이다"

편충(鞭虫) 이야기 ①

李 純 焰

나는 아마도 한국의 여러분과 가장 친밀한 기생충이라 자부하는 편충(鞭虫)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천적 회충과 항상 사이좋게 따라다니지만 회충보다는 우리 편충이 더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편충이 회충을 따라다니는것이 아니라 회충이 우리 가는데를 졸졸 따라다닌다고 하는것이 올바른 표현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 편충은 생김새가 채찍같이 생겼다 해서 한문으로 채찍(**鞭**)자를 쓰는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이름을 便자로 잘못쓰는 분도 있습니다. 남의 이름을 잘못쓰는것 처럼 실례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우리 이름을 잘못알고 계신분이 있으시면 앞으로는 올바로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편충은 이름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학명(学名)으로는 *Trichocephalus trichiurus* 라 부르는데 이 뜻은 실같이 가는 머리를 가졌다는 거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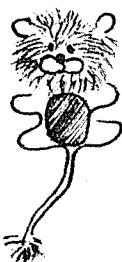
그러나 어떤이는 *Thichuris trichiura* 쓰는것이 옳다고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 이름은 우리 머리를 꼬리로 잘못알고, 실같이 가는 꼬리를 가진 기생충이라 부르게된데서 생겨난것입니다.

옛날사람들은 우리 편충을 자세히 관찰하지 않고 으레 다른 짐승처럼 꿀은 꽂이 머리고 가느다란 꽂이 꼬리로 착각해서 호적에 올려버렸기 때문에 개명을 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조생회
총은 우리 가는데를
겼다고 해서 채찍
편(鞭)자
편충이란 이름이
줄줄 따라 다닌답니다.
채찍같이 불었

이 기
우리
는 럽니
처다.
같아
서 풍
그 대
우리
는 입
물 같
부 이
이 목
몸 이



편총이야기

나중에 우리의 특수한 머리구조를 관찰한 학자들이 *Trichoccephalus*라고 쳐 부르자고 하였지만 아직도 고집센 사람들 이 우리 호적에 등록된 이름은 비록 그것이 잘못된 이름이라 할지라도 고쳐서는 안된다고 우기면서 계속 옛날이름을 부르고 있답니다.

우리 편총은 기생충 중에서 기린아(麒麟兒)라 할 수 있지요. 왜냐구요? 그야 우리 목이 기린과 같이 길어 우리 몸길이의 3/5을 차지하기 때문이지 별다른 뜻은 없읍니다.

우리의 키는 숫컷이 3~4.5cm, 암컷이 4.5~5cm 이니 2~3cm 가량이 목이 되고 나머지가 몸이 되는 셈입니다. 이 가늘고 긴 목부분과 머리를 옛사람들이 꼬리로 착각한 것도 무리는 아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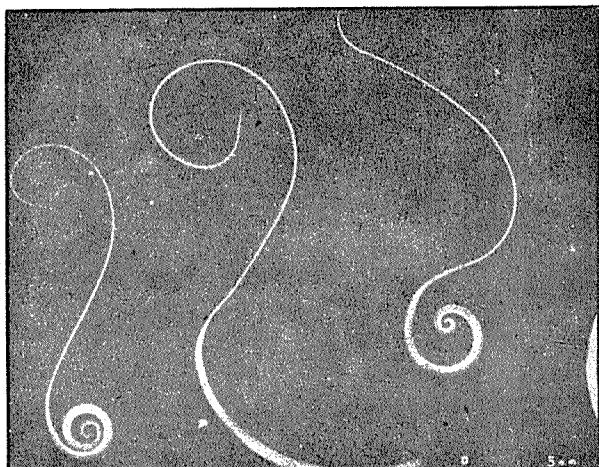
몸부분은 목에 비하면 훨씬 굵은데 숫컷은 360° 이상 둥글게 말려 있고 그끝에 교미침이 나와있으며, 암컷은 그대로 빛밋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 1)

우리 편총들은 사람들의 맹장에 보금자리를 꾸미고 살고 있으으면서 우리들의 2세가 될 알을 부지런히 낳는데, 평균 우리 편총 암컷 한마리가 하루에 5,000~7,000개를 산란합니다.

이 알은 모양이 아주 예쁜 솔통모양을 하고 있으며 양쪽 끝에 마개까지 갖고 있어 누구나 한번만 보면 금새 다시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의과대학생이나 임상병리사들로부터 사랑을 받는답니다.

하여간 우리 조상들중에 술을 좋아한 분이 있었다는 말을

고 꼬리
머리와
몸부분이
밀려있느
것이
수컷이
(사진 1)
편총의
암컷과
수컷.



우리는 맹장에 보금자리를 정하고 살면서 출통처럼
개까지 있는 술통같은 알이 있어요.

깝니다 양쪽에
마생

듣지 못했는데 아이들이 출통을 닮았으니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군요. (사진 2)

이 총란들은 사람의 대변과 함께 배출되어 바깥세상 구경을
하게 됩니다. 자연계에 나온 알들은 곧 발육을 시작하여 보통
2~3주일이면 감염성이 있는 자충포장란(仔虫包藏卵)이 됩니다. 그러나 환경에 따라 3~4주 또는 수개월이 걸리는수
도 있습니다.

우리 편충의 알은 회충알보다는 건조나 열 또는 추위에 약
하지만 그래도 꽤 저항력이 크다고 알려져 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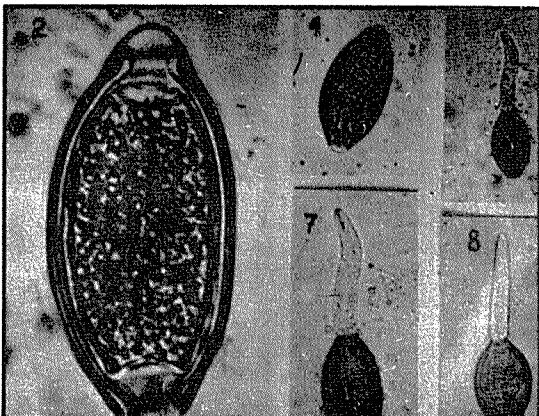
한예로 칠리의 산티아고 市 부근의 한 고지에서 옛 잉카少
女의 시체가 발굴되었는데 그창자속에서 우리 편충알이 그대
로 깨끗하게 보존되어 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학자들이 조사한 결과 이 9살난 소녀는 이미 450년전에 죽
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만하면 우리 편충의 알이 열
마나 저항성이 크다는것을 아셨으리라 믿읍니다.

이런 감염형인 우리 편충알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몸안으로
들어가면 작은 창자에서 마개를 들치고 나오게 되며 여기서 장
융모속에 끼어들어가 3~10일동안 양전하게 지내다가 청년
기가 되면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 결국 맹장에 이르러 완전한
성충이 되며 이곳에서 결혼도 하고 알도 낳게 됩니다.

사람의 입을 통과해서 부터 우리가 맹장에 자리잡기 까지
30~90일이 걸립니다.

우리 편충은 회충이나 구충과 같은 친척들과는 달리 사람의
몸안을 이리저리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장난을 하지 않고 짚



(사진 2) 출통모양으로 생기고
양풀에 드는 마개가 있는 편충의 알.
소장에 도달하면 어린다. 사진과
같이 마개를 들치고 애벌레가 나
온다.



편충이야기

편총이야기



많게 창자속에만 도사리고 있기에 가히 이런점에서도 기린아라고 할까 신사라고 할까 어쨌던 좀 듬직하고 으젖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성충이 되면 우리 편총들은 우리의 가늘고 긴 머리와 목부분을 사람의 장점막에 마치 바느질 잘하는 여인들이 옷감을 누비듯 누벼놓기 때문에 운동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영양분은 충분히 흡수를 할 수 있고 때로는 우리 편총들이 특수한 분비물을 내어 부근의 점막세포를 녹여서 영양분으로 쓰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우리 편총들이 피를 빨아먹는다고도 하나 우리의 식도는 너무나 가늘기 때문에 적혈구가 통과할 수는 없다고 하는 학자도 있어 사람들은 아직도 우리가 피를 빠느냐 않느냐를 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읍니다.

다만 우리 편총들의 식구가 많을 때에는 사람에서 빈혈이 일어나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우리 편총들은 세계 어느 곳에나 널리 퍼져 있고 유행지에서는 전 인구의 90% 이상이 우리 편총들을 먹여 살리고 있읍니다만 한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리수 즉 감염 강도는 많지 않은 것이 보통이라 합니다.

세계적으로는 약 5억의 인구가 우리 편총들을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 편총들의 낙원인 한국에서는 전인구의 70% 가량이 우리를 양육하고 있어, 한국사람은 다른 어떤 기생충보다도 우리 편총들을 사랑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점 우리 편총들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요. 일반적으로 어른에서 보다 어린이들에게 많은 것은 우리 친척 회충의 감염에서와 같은 현상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거니와 사람에게 감염되는 경로가 우리 편총에서나 회충에서나 같기 때문에 우리들은 대개 공존을 하는 경향이 있고 역학적 특성도 같다고 합니다.

한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 편총의 마리수를 보면 일본에서는 평균 7.8마리라 하였는데 또 다른 학자는 49세 되는 남자가 1553마리의 편총기생으로 사망한 예를 보고한 기록도 있읍니다.

여도 우리는
태아는
학아 신사
자들 이는
우리가 의젓
서로 피를
싸우고 빨아
계시죠? 다른
것들 먹느냐
요처럼

그 돌
것 아
때 다
문 에
지

〈필자= 중앙의대 기생충학 교수 · 의박〉